

# 내 속에서 들끓는 생명력 이상의 진실

사랑이야기 《목선》에서 우주 울동의 표본 《꿈》까지

한승원

소설가

최근에 쓴 장편소설 《사랑》을 통해 나는 사랑을 총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싶었다. 사랑은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내 모든 소설의 궁극적인 화두이자 내 삶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비밀작법일터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



첫 소설 《목선》(시문사)은 남쪽바다의 김양식장을 배경으로 펼쳐진 사랑이야기이다. 목선 하나와 그것을 소유한 여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두 남자가 싸운다. 목선이 그 여자이고 그 여자가 목선이다. 그 소설 속의 목선과 그 여자는, 우리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다.

다섯번 도전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남자가 자살한 사건을 나는 알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어떤 까닭은 자살한 그 남자만 알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목선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분투하던 남자가 막상 목선과 그것을 소유한 여자를 함께 얻고 나서는 허무를 느낀다. 나의 소설공화국 안에 사는 모든 인물들은 절망하고 또 절망을 하지만 시지프스처럼 결코 자살을 택하지는 않는다.

《목선》 이후 내 소설들에는 늘 '토속적', '한스러움'이라는 말이 붙어다녔다. 그 말들을 나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붙이는 것은 붙이는 쪽의 자유이니까. 연작 《안개바다》(문학과학지성사), 연작 《어머니》(문학사상사), 연작 《극락산》(민족사), 《폐촌》(열림원), 중편 《아리랑별곡》, 《낙지같은 여자》(지양사), 《포구》(문학동네), 《우리들의 돌탑》(문학과학지성사), 《그 바다 끓여 넘치며》(범조사) 따위의 소설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 모양이다. 연작 《불의 딸》(문학과학지성사), 중편 《새끼무당》 이후로는 사마니즘 작가로, 《아제아제바라아제》(고려원), 《연꽃바다》

(세계사)를 쓰고 나자 불교적 성향의 작가로 낙인 찍었다.

평생 작품을 하며 사는 작가들은 대부분 우주 전체를 아름답게 색칠하려고 든다. 한데 성급한 독자들은 그 작가가 색칠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작가가 그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이성을 한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대답한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유연한 삶을 살기 위해 산다. 나를 그렇게 존재하게 하고, 그러한 높은 쪽으로 상승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서 들끓는 생명력 때문에 산다. 생명력 이상의 진실이 어디 또 있을까. 나의 모든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일 터이다.

## 내 소설의 궁극적인 화두는 '사랑'

최근에 쓴 장편소설 《사랑》(문예중앙 연재, 근간 출간 예정)을 통해 나는 사랑을 총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싶었다. 사랑은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내 모든 소설의 궁극적인 화두이자 내 삶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비밀작법일 터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이 당하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버텨가게 해줄 유일무이한 버팀목 아닐까.

소설 《사랑》의 첫대목은 사마귀 암컷과 수컷이 정사를 벌인다. 정사는 하나의 우주적인 행사이다. 그 행사를 바라보는 햇살, 뼈꾸기, 늙은 소, 개, 왕매미들이 모두 목청 높여 소리치고 찬란하게 조명을 해준다. 한테 사마귀 암컷은 교미가 끝나자마자 수컷을 잡아먹어버린다. 이때 암컷은 하나의 블랙홀이 되는 것이고, 수컷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것을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단견이다.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위대한 사랑인 것이고 우주 운행의 원동력인 것이다.

사랑은 학대와 피학대의 조화이다. 여성운동을 위한 문학은 가끔 여성으로 하여금 상대인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려 한다. 사랑은 상대의 존재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극복함으로써 그 지위와 누림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삶의 꽃이고, 삶은 상대를 학대하고 상대로부터 학대당하기를 동시에 바탕에 깔고 있다. 그 가학과 피학은 알맞게 조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랑을 조화로 인식하지 않고

극복하려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몰인식이고 모독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참으로 우둔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삼년 동안 전남 장흥 울산마을에 정착한 이래, 소설 《사랑》 속의 주인공들과 사용된 말 한마디 한마디들은 나에게 무척 많은 학대를 당했다. 아니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서 학대를 당해왔을 터이다.

## 우주는 들고 도는 만다라

서포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꿈》(문이당, 12월 출간 예정)으로 고쳐 썼다. 가부장제 속의 양반소설의 대표적인 것으로 치는 그 소설을 나는 우주 울동의 한 표본으로 파악했다. 구운몽은, 한 남자가 여덟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소설이라고 인식되어 왔으므로 여성운동가들은 그 소설에 대하여 기분 나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소설에 대한 오해이다. 양소유가 똑똑하고 힘이 세어 여덟 여자를 끌어모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다. 여덟 여자들의 아기찬 힘이 양소유를 남편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생각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처음에 대지가 있었을 뿐이다. 그 대지

# 올해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모집

## 10월 말까지 접수 ... 선정도서는 3백만원 상당 책구입

위로 어디선가 풀과 나무의 씨들이 날아와 서식하고, 그 풀과 나무잎을 뜯어먹기 위해 동물이 이동해 오고, 그 동물을 잡아 먹기 위해 어느 다른 벌에서 인간이 달려온 것이 아니다. 땅속에서 넘쳐 나는 광물질의 기운이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만들어냈고, 그것들의 뿌리와 줄기를 타고 잎과 꽃과 열매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식물들 속에서 넘쳐나는 기운이 동물들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힘과 기를 쏟아부는 것이다. 어느 외계에서 온 인간들이 모든 식물의 잎과 열매를 뜯어먹고 사냥을 하거나 가축들을 키워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이 스스로의 내부에서 넘쳐나는 힘과 기로써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기르는 것이다. 그와같은 원리로, 세상의 모든 암컷들은 주위에 존재하는 수컷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치열한 수컷한테서 유전자를 받아 가장 우세한 새끼를 낳으려고 한다.

우주의 원리는 '하늘의 뜻을 꼭지점으로 한 피라미드 모양새'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피라미트는 고차원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들의 이상세계 속의 진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꼭지점이다. 사실은 그 꼭지점은 없고, 원(圓)이 있을 뿐이다. 물은 땅 표면이나 땅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밑으로 밑으로 흘러가다가 어느날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가 하늘을 떠돌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물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성질만 가진 것이 아니고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성질이 다 그러하다. 빛도 원통의 가장자리처럼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율동의 참된 모양새는 그것이다. ❖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가 '98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를 모집한다. 97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문광부에 납본을 필한 국내 신간도서(전자출판물 포함, 단 교과서·학습참고서·98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신청한 도서는 제외)를 소정양식과 함께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방문 또는 우송(접수 마감일 소인분 유효)하여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총류·역사·종교철학 등 10개 분야 총 100여종을 선정하며, 결과는 11월 18일 한국일보·한겨레신문에 공고할 예정. 선정된 도서는 3백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해준다.(문광부 출판진흥과:720-4905, 출협 홍보부:733-8402)

### 한국출판평론상 공모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정광)는 '제4회 한국출판평론상' 원고를 모집한다. 분야는 출판관련 법규·정책 개선방안, 출판진흥방안 등 정책제안과 제언을 담은 <출판정책>(2백자 원고지 70매 내외), 출판물의 제작·유통, 출판경영, 출판환경 변화 등 각종 업계 현안을 다룬 <출판계 시평(時評)>(2백자 원고지 70매 내외), 출판물의 장르별 동향분석이나 주제별 신간 서평을 다룬 <신간

평론>(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2편) 등이다. 원고마감은 10월 31일까지. 원고는 출판연구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11월중에 개별 통보하며, 상금은 2백만원. (739-9040)

### 서울 대형서점 가을행사 풍성

교보문고(대표 박환인)는 '제5회 서울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전시회·도서전 등을 펼친다.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우리의 옛서울>, 서울의 거리·지리·환경·역사 등과 관련된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서울 관련 기획도서전>, <구정가 도서판매전> 등이 주요 내용. 행사는 서점과 거리에서 펼친다.(397-3432)

종로서적(대표 민병인)은 10월 31일 서정주의 <질마재의 신화> 탄생지를 찾는 문학기행을 펼친다. 서울-변산(채석강)-내소사-직소포포-질마재-서정주 생가 등을 돌아본다. 또한 11월 7일 오후 4시 <기적의 숲 건강법>의 저자 성제도의 건강법 특강도 7층 휴게실에서 갖는다.(733-2331)

을지서적(대표 방용남)은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축제'를 펼친다. 분당점 5층 이벤트

홀에서 펼칠 행사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민화 교실>,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구연동화 교실>,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NIE 교실>이다.(0342-781-4700)

### 도서 1천종 발간 기념 전시회

서울대학교 출판부는 65년 첫책을 출간한 이후 지난 8월 30일 1천번째 도서를 출간한 기념으로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된 책은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 벽초 문학제 성료

사계절출판사(대표 강광실)는 벽초 홍명희의 서거 30주기를 맞아 지난 17일 그의 정신과 작품세계를 기리는 '제3회 홍명희 문학제'를 고향인 충북 괴산 국민회관에서 열었다. 올해는 조선일보에 <임격정>을 연재하기 시작한 70주년이기도. 1부에서는 벽초의 문학성을 돌아보는 강연을 열었고, 2부에서는 문학비 제막식을 가졌다.

## 정부수립 이후 교과서 변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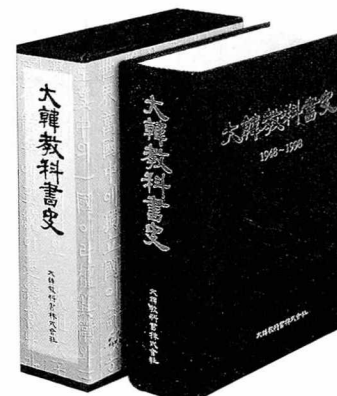
### 이종국 지음 《대한교과서사 1948~1998》

대한교과서주식회사(대표 황태량)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사(社史) 《대한교과서사 1948~98》을 펴냈다.

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각종 교과서와 초중고 참고서를 발행해온 출판인쇄업체 대한교과서(주)의 반세기 역사는 곧 대한민국 교과서 출판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한교과서 창립 이전의 일제말기와 미군정기의 교과서 발행 현황도 흥미롭다. 일제 강점기에는 교과 교육내용을 '경멸적 우화내용'으로 '우민화'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고, 미군정기에는 식민시대 교육잔재를 씻

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대한교과서(주)는 창립발기문에 밝혔듯 '현대과학적인'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사사에서는 특히 교과서에 나타난 학생상의 변화

모습, 광복후 문교정책과 이에 따른 교과서 변천과정도 읽을 수 있다. 70년대 유신시대와 80년대 군부정권시대, 교과서 편제와 통합 교과서 생성, 한·일 양국의 교과서 왜곡 시비,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등 시대상황에 따른 교과서 특성도 살필 수 있다.



또 대한교과서(주)의 방계회사였던 현대문학, 어문각과 잡지 <새소년>의 역사도 담아 출판계의 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사사의 집필은 이종국 혜천대학 교수가 맡았다.

대한교과서(주)/B5/1544면/비매품